

옛날 이 믋실 설위홀 적이
유수암에 짐장수가 설위홀
당이우다.

짐장수 시절에
고내오름엔 녹대벗인
물이 흐나 이셨는다,
놈으 곡속을 문 먹어불곡
하여도
늑시 심질 못흐연 흐는다,
흐로운 밤이 짐장수 꿈에
산신대왕 산신백관이
나타나서,

“아멩아멩 흐영 심으민
고내오름엿 녹대벗인 물을
심어질 거매,
그 물을 심영 타민
알을 도래가 실 거라”
흐연,

이젠 짐장수가
그 산신대왕 산신백관이
굴아준대로 흐난
그 물을 심어졌수다,
짐장수가 물을 심어단
타는다,

흐 어이에
지주삼읍을 문 돌앙 오곡
흐였수다.

그영흐는다, 흐 해엔
되놈들이 쳐들어오란
므실에 재물을 약탈하고
예편네를 겁탈하고, 하여가니
짐장수가 나스서
지주목스신디 가
스실 말을 하고
스령들을 빌어단

성제오름 서북편으로 간
넙은 흙에 곱앙 시렌
헉여두언,
짐장수가 되놈들 신디레 간
성제오름 앞데레 홀리와 오난,
이 때 곱앗단 스령들이
흔꺼번에 나산
되놈들을 절박헉연
지주목에 들어간 바치난
지주목슨 상감님께 솔오난,
나라에선 큰 상금이 낙리고,
건공장군 배실??지 주었수다.
그영헉난 짐장수가
건공장군이 되였는디,
글지후제 짐장수가
산신대왕 산신백관을 위헉는
당을 설연헉난
막실 사름들도 무심홀 수가
엇어, 정성으로 위홉네다.
후제 영천 이목스 시절에
이 당집에 불지더부난
이제??지 그냥 낙르웁네다.
수덕 좋고 버네 좋은
산신대왕 산신백관님이우다.

제일, 즈손에 생기 맞은 날.

<애월면 금덕리 여무 70세 고일부님>

진성기, 『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』, 민속원, 1991, pp.607-608.